

타이거 우즈, 보호대 차고 아들 찰리 골프 대회 방문



▲ 타이거 우즈가 최근 아들 찰리가 출전한 대회장을 방문해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TWSPOT 캡처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아들의 대회장을 방문한 사진이 포착되는 등 사고 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이거 우즈의 팬들이 만든 ‘TW스팟’(TWSPOT)이라는 소셜 미디어 계정에는 최근 우즈가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사진이 게시됐다. 이 사진에는 ‘우즈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허리케인 주니어골프 대회에 출전한 아들 찰리를 보기 위해 대회장을 방문했다’는 설명

이 붙어 있다.

찰리가 출전한 허리케인 주니어골프 대회는 25일부터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 열렸다. 올해 12세인 찰리는 11~13세부에 출전해 이틀간 23오버파 167타를 치고 출전 선수 18명 중 공동 8위에 올랐다.

우즈는 오른쪽 다리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카트에 타고 있는 모습이였다. 옆의 운전자는 그의 여자 친구인 에리카 허먼으로 추정됐다. 대회를 연 허리케인 주니어 골프 대회 조직위원회도 이 사진에 댓글을 달아 ‘위대한 선수가 오늘 우리 대회장을 방문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적었다.

우즈는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운전 도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 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고 치료 및 재활 중이다. 3월 미국 플로리다주 자택으로 이동한 우즈는 24일에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목발을 짚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옆에 있는 반려견을 가리켜 ‘믿음직한 재활 파트너가 있어 더욱 좋다’는 글을 올려 골프팬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올림픽에서 뛰려면 다리를 더 잘라야”



▲ 블레이크 리퍼. 사진=트위터(Blake Leeper)

블레이크 리퍼(32·미국)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족 단거리 선수 중 한 명이다. 두 다리가 없어 블레이드 모양의 의족을 달고 뛴다. 2012 런던 패럴림픽에서 200m 동메달, 400m 은메달을 땀다. 올 7월로 예정된 2020 도쿄 대회 때는 패럴림픽이 아니라 올림픽에 도전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세계육상연맹은 지난 27일 ‘올림픽에 나서려면 리퍼의 다리를 더 잘라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리퍼는 올림픽 도전을 위해 5년 동안 써 오던 의족을 2인치 잘라냈다. 하지만 세계육상연맹은 리퍼의 의족이 여전히 길고, 리퍼의 키를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비장애인과의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의족의 ‘적절한 높이’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계육상연맹도 “이번 결정은 정확한 과학이 아니라 추정된 정보를 통해 내려졌다.”고 인정했다.

세계육상연맹은 리퍼의 상체를 기준으로 한 ‘정상 키’가 5피트 9인치(약 175cm)인데, 의족 때문에 6피트 8인치(약 2m)의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퍼의 과거 의족 착용 키는 6피트 2인치였고, 올림픽을 위해 2인치를 줄였다. 뉴욕타임스는 “비장애인 400m 선수들의 평균 키가 6피트이고, 대부분 상체에 비해 다리가 길다.”며 “게다가 블레이드는 비장애 다리와 달라서 달릴 때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리퍼는 스위스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그의 올림픽 출전 여부가 그 판결에 달렸다.

‘연장전 대신 홈런 더비’ MLB의 새로운 실험

메이저리그(MLB)가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8일 ‘OSEN’에 따르면 메이저리그의 파트너 리그인 독립리그 파이어나이어 베이스볼 리그는 전날 “내달부터 시작되는 2021시즌에서 ‘넉 아웃’ 방식의 연장 승부와 새로운 ‘지명 대타, 대주자’ 방식 등을 도입해 테스트한다.”고 발표했다.

‘넉 아웃’ 방식의 서든 데스 연장 승부는 홈런 더비 방식으로 치러진다. 9회 말까지 승부가 결정나지 않으면 양팀에서 한 명씩 나서 5개의 공으로 홈런 대결을 벌여 승부를 가르는 방식이다. 여기서도 동점이 되면 다른 선수가 또다시 5개의 공으로 홈런 대결을 벌이며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된다. 이는 투수진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됐다.

지명 대타, 대주자는 말 그대로 대타나 대주자를

한번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는 대타나 대주자로 나설 경우 다른 선수와 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게임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지만, 대타와 대주자가 나가도 기존의 선수가 계속해서 남은 경기를 뛸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대신 이 방식은 각 팀이 경기 중 딱 한번씩만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체크 스윙’ 규정도 실험한다. 지금까지는 체크 스윙에 대한 어필은 주심과 포수에게만 있었지만 새 규정은 타자도 1루나 3루수에게 직접 어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즌 파트너 리그에서 실행하는 각종 새로운 규칙의 테스트가 꼭 메이저리그에 적용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새로운 규칙으로 재미를 더하고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날말퍼즐 정답

		1 정	육	2 점		3 일	진
	4 방	석		5 포	6 스	터	
	파				포		
7 거	제	8 도		9 평	일		10 확
을		11 탄	광		12 러	13 브	신
		지				라	
	14 연	고	15 지		16 처	질	
17 고	봉		18 방	목	장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 감사대행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